

Petrobras, 리우유전 개발 본격화

리우 북쪽 연안에 2012년까지 400억달러 투자 ... 세계 5위권 진입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인 Petrobras가 2012년까지 리우데자네이루의 유전 개발 등을 위해 4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 세르지오 가브리엘리 Petrobras 회장은 “Petrobras의 2008-12년 투자 계획에 따른 전체 투자액 1124억 달러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405억2000만달러를 리우지역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robras는 리우 북쪽 대서양 연안의 캄포스만에 위치한 론카도르, 마를림, 마를림 술, 마르림 레스테, 파파·테하 등 광구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캄포스 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 및 유도제품은 브라질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 과나바라만에 석유화학 복합단지 및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대형 에너지시설 건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Petrobras는 최근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한 1124억달러 수준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유전개발, 정유 및 유통·판매, 천연가스 및 석유화학, 바이오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10-15위권인 에너지기업 순위를 5위권으로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29>